

국외출장 결과 보고

- '24년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 -

I. 출장개요	
II. 주요일정	
III. 출장단 구성	
IV. 기관별 결과보고	
1. EPS 센터	3
2. 송출기관	8
3. KOICA 직업훈련센터	14
4. 모노센터	18
V. 정책제안	21

고 용 노 동 부
외국인력담당관실

1 출장개요

☐ 일정

- 출장 기간 : '24.12.16.(월)~24.12.21.(토)
- 출장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박진영 외 10명

☐ 출장목적

-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들이 송출국가에서 외국인력 선발, 기능 수준평가, 취업교육 등의 송출업무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 업무담당자의 고용허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을 경험하여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함

2 주요 일정

☐ EPS센터, 송출기관, 직업훈련 훈련기관 등 방문

- (EPS센터)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특성, 한국어시험 현황, 송출 기관과의 관계, 구직자 명부 작성·등록 현황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 (송출기관) 송출관련 애로사항 청취, 송출업무 전반 모니터링, 체류기간 만료자 자진 귀국 유도를 통한 불법체류 예방 방안 등 논의

- (직업훈련센터, 모노센터) 현지 KOICA 직업훈련센터, 모노센터 시설 및 현황 확인, 교육 과정 참관을 통해 고용허가제 입국 전후 훈련 관련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

3 출장단 구성

□ 출장단 구성

순번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1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	박진영	여
2	외국인력담당관실	행정주사보	권지훈	남
3	기업훈련지원과	행정주사보	한호정	여
4	광주청	전임상담원	강가미	여
5	성남지청	행정주사보	김주은	여
6	평택지청	행정서기보	박민선	여
7	고양지청	행정서기	서준형	남
8	청주지청	행정서기보	서지은	여
9	창원지청	행정서기보	전경준	남
10	서울동부지청	직업상담주사보	천은실	여
11	전주지청	전임상담원	황인혜	여

4 기관별 방문 결과 보고

1. EPS센터

□ 목적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에 대한 선발, 송출과정 모니터링 및 도입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송출국가와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설립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4조), 고용허가제 MOU(제16~18조)

□ 연혁

- '06. 3. 29 한-우 노동부 간 인력도입에 관한 MOU 체결
- ※ 갱신 : '08. 6.25(1차), '10. 9.25(2차), '12.12.13(3차), '16. 3.31(4차), '19. 3.19(5차)
- '07. 1. 우즈베키스탄EPS센터 개소
- '12.11 EPS센터 이전(現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2층 건물로 이전)
- '13. 6. CBT 시험장 구축(타슈켄트 내, 40석 규모)
- '22. 6. UBT 시험장 구축(테이블릿PC 130개)

□ 주요 업무

- 외국인근로자 송출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평가 시행
- 외국인근로자 사전 취업교육 지원
- 귀국근로자 한국기업 취업알선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 고용허가제 사업설명회 실시 등 홍보
- 송출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

□ 직원 현황

구 분	주요업무	성 명	근무기간	비고
센터장	총괄	권 태 검	'21.01.01 ~ '24.12.31	-
현지직원	행정·통역	무니스혼(여)	'17.01.16 ~ '24.12.31	현지인
현지직원	행정·통역	셰르조드(남)	'24.03.26 ~ '24.12.31	현지인
현지직원	운전	오딜(남)	'20.05.10 ~ '24.12.31	현지인

□ 주요 시설 현황

- 사무실 임차 현황

구 분	내용	비고
주 소	3 Talimarjon st, Miraba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면 적	248.4m ²	
임차기간	'12.11.01 ~ '24.12.31	1년 단위 계약갱신

- CBT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 : 타슈켄트 모노센터(매년 임차 활용)
 - 소재지 : 타슈켄트시
 - 주요장비 : 테이블릿PC 130대, 이동식 UPS 장비 등

□ EPS센터 업무 관련 송출국 주요 유관기관

- 정부 및 송출기관

구 분	기관명	기관장
정 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Poverty Reduc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고용빈곤퇴치부)	Botir Erkinovich Zohidov (장관)
송출기관	Migration Agency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노동청)	Behzod Anvarovich Musaev (장관급)

□ 주요 면담내용

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은?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로 근로자를 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러시아에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하였으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송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보수가 높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② EPS 송출 과정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이유는?

⇒ 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타 송출국가에 비해 많다고 하는 것이 꼭 부정행위 자체가 많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충실한 관리·감독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타 국가에 비해 송출 과정 자체에 부정행위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③ 외국인근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하는지? 업종별 합격 커트라인에 따라 입국이 빠른 업종을 선택하는지?

⇒ 시험은 각 업종별(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각각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선호도가 개개인마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합격선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④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 현지에 EPS-TOPIK 관련 학원이 많이 있음. 한국어회화 실력을 올려주는 학원이라기보다는 EPS-TOPIK에 합격하기 위한 문제 스킬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의 TOEIC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며, 이러한 학습법이 한국어회화 능력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임

⑤ 한국어능력시험 출제(난이도 조정)는 어떻게 하는지? 합격점을 높일 수 있는지?

⇒ EPS-TOPIK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지에서 시험합격을 위한 한국어 학원들이 생기고, 시험에 합격할 학원식 스킬교육을 받은 이들이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임.

EPS-TOPIK 커트라인을 올린다고 해서 현지인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비례적으로 올라간다고는 할 수 없음.

난이도를 조정하기보다 선발인원을 줄인다면 자연스럽게 고득점자인 근로자가 선발되기 때문에 합격선 조정보다는 선발인원을 조정하면 된다고 보임.

⑥ EPS-TOPIK 관련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업종을 나누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업종에 지원한 사람은 타 업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조업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커트라인에 비해 고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고득점자는 제조업에 몰려 한국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고, 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음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업종으로 구분된 시험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어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을 더 많이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⑦ 사업주 귀책으로 신규 입국자가 입국이 취소되었을 때 그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른 사업주와 다시 매칭될 수 있도록 구직자명부에 다시 포함.

⑧ 사전취업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는지?

⇒ 사전취업교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EPS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음. 다만, EPS 센터에서는 취업 교육 센터(우즈벡 정부 주체)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EPS센터의 교육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한국어강사 등을 초빙해하는 등 간접적으로 교육을 지원함.

2. 우즈베키스탄 송출기관

□ 조직구성

○ 본부

- 청장(장관급) : Behzod Anvarovich Musaev
- 부청장
 - 제1부청장 : Kuranov Matlab
 - 제2부청장 : Xusanov Azimjon
- 부서

부서명	팀장	직원(수)
계		76명
행정팀	Islomjon Hamrayev	25명
국제관계팀	Bekzod Dimetov	8명
캐나다·미국담당팀	Alisher Ruziyev	10명
한국담당팀	Toshtemirov Azizbek	7명
러시아담당팀	Babayev Dilshod	5명
유럽담당팀	Sardor Muhammadiev	9명
일본담당팀	Olimjonov Dostonbek	6명
사전취업교육팀	Xapizov Abduaziz	6명

○ 지사 : 14개 지역*, 직원 55명

* 안디잔, 페르가나, 나망간, 타슈켄트 사하르, 수한다리야, 카르시, 히바, 누쿠스, 부하라, 시르다리야, 지작, 나보이, 사마르칸트, 타슈케트 빌

□ 주요업무

- 러시아, 한국(고용허가제), 일본, 캐나다, 대만, 유럽 등으로의 인력송출 업무
- 고용허가제 사전취업교육 등

□ 고용허가제 관련 우즈베키스탄의 현안사항

○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식)

- 국내(우즈베키스탄) 일자리가 부족하여 해외 송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임. 최근 가장 많은 인력을 소화하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송출이 어려워져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음.

○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현안사항)

- 구직자 명부상에 대기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의 불만이 상당하다. 한국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람.
- 최근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함. 현재 검토중인 협력사업이 무탈하게 진행되길 희망하며, 한국을 근무지로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력이 10만명 가량 대기 중임. 그 중 우수한 인력만 선발하여 협력 사업에 송출토록 노력하겠음.

□ 주요 면담내용

① 우즈베키스탄 송출기관에서 하는 일은?

⇒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부터 통과한 후보자들이 대사관에 비자 접수를 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부터 실제 송출하는 과정까지 진행함

② 근로자들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구직자들의 지역별 분포 (도시 또는 농촌 거주)는 어떤지?

⇒ 인터넷 해외노동이민청 공식 홈페이지, TV 뉴스,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해서 모집함.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 신청을 함.

③ 한국 사업주들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나이에 따른 예의범절 등 여러 측면에서 문화가 비슷함. 그러나 일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한국 사업주들의 요구에 맞을 수 있도록 현재 7일로 운영중인 출국 전 훈련과정을 2주 정도로 확대 준비중.

④ 우즈베크 해외노동청의 소속이 최근 노동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바뀌었는데 언제, 왜 바뀌었는지?

⇒ 2024년 10월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해외노동이민청으로 소속을 변경함. 근로자들을 훈련센터에서 교육시킬 때 해외 협력 파트너십 수준에 맞게 정부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준비시켜, E-9 비자지만 전문인력 수준의 경험과 능력있는 근로자를 송출하기 위함임.

⑤ 근로자들의 이력서상 키, 몸무게, 기혼 여부 등을 송출기관에서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주는지? 사실 여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시험에 합격한 후보자들이 비자 접수를 하기 전, 한국산업인

력공단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안에 모든 정보가 포함.

해외이민노동청 본부가 타슈켄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지청이 따로 존재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청에 가서 검사 받은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제출하고, 지청에서 그 정보를 본부로 보내면 본부에서 전자시스템에 등록함.

기혼 여부는 외국인들의 입력한 정보 외에 따로 혼인서류 등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⑥-1 고용허가제 담당자들이 사업장 및 기숙사 관련 시각화 자료를 EPS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들은 등록된 사업장 시설 사진, 기숙사 사진, 근로 조건 등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노동부 직원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 전 외국인들이 사업장 시설, 기숙사 등 사진을 통해 본인이 앞으로 일하게 되는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끔 특정 사업장은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거나, 자세하지 않음.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후 사업주와 분란이 없도록 사진을 자세히 올려주시길 요청함

⑥-2. 송출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자를 직접 부르는지?

⇒ 전자시스템이 본부인 타슈켄트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에서 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에 있는 지청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본부로 다시 보내주고 있음.

⑦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 중 신체적 지병이 있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회사 측에서 퇴사 및 출국 관련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하면 귀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 현재 한국에서 주재사무소를 운영 중. 우즈베크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음. 근로자 귀국 조치가 한국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고려하겠음.

< 송출기관 간담회 >



3. KOICA 직업훈련센터

☐ KOICA 직업훈련센터 개요

- 우즈베크 직업훈련 질을 제고하여 양질의 산업인력 배출 및 우즈베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KOICA 지원사업으로 건립

☐ 설립년도 : 2016년

☐ 교육분야 및 기간 : 6개 분야, 6개월 과정

- | | |
|---------|------------------|
| ○ 자동차수리 | ○ 용접 |
| ○ 전자공학 | ○ 컴퓨터공학 |
| ○ 기계공학 | ○ 컴퓨터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

☐ 주요 면담내용

① 입학생 모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등학교를 졸업(추천서 발급)한 실업자이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모집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받음.

18세에서 50대까지이 가능하며, 실제 56세이신 분도 컴퓨터를 배워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② 훈련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용접,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IT), 기계(CAD/CAM, 정밀측정),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등의 과정이 있으며, 직업훈련기간은 총8개월임.

6개월간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2개월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이루어집니다.

③ 선호직종과 취업률은?

⇒ 해외취업에 용이한 용접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용접은 8개월 수료후 용접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6개월 추가 교육후에 취업을 하며, 취업은 90%정도 국내, 10%정도 해외로 취업하고 있음. 해외는 주로 유럽, 러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하는데, 한국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편이며, 훈련생들은 용접기술을 배워서 한국의 선박회사에 취업하기를 매우 희망함.

④ 남녀비율

⇒ 훈련생 240명 중 42명이 여성이며, 여성훈련생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여성훈련생들은 주로 컴퓨터정보통신IT나 컴퓨터그래픽디자인 과정에 지원하고 있음

⑤ 졸업생(수료생) 현황?

⇒ 2016년 이후 8개월 과정에서는 4,000명이상 졸업했고, 단기과정(32개과정, 유료, 수익)에서는 2,000명이상 졸업을 하였음

⑥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공동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산하 훈련기관 중 한국코이카만 유일하

여 무료로 공유해주고 있음. 훈련생 1인당 교재 2권씩 제공함

⑦ 훈련받고 어느 나라로 취업이 되나요?

⇒ 전기과는 주로 독일로 취업을 하고 있고, 기계과가 한국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음. 최근 전자·기계과 졸업생 4명이 E9으로 한국에서 일하러 갔음

⑧ 훈련기간 8개월동안 훈련비와 생활비는?

⇒ 훈련기간이 8개월로 짧지 않기에 훈련비는 80불 정도 지원되며, 이외에 용돈, 교통비, 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직업훈련센터, INNO >



4. 모노센터(직업훈련)

☐ 기관개요

- 실업자·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위해 우즈벡 빈곤 퇴치고용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우즈벡 자체 훈련기관

☐ 설립년도 : 2021년

☐ 교육분야 및 기간 : 20개 분야, 2~4개월 과정

- | | | | |
|--------|------------|----------|---------------|
| ○ 전자공학 | ○ 온실, 수경재배 | ○ 가전수리 | ○ 재단 |
| ○ 배관 | ○ 호텔매니저 | ○ 용접 | ○ 어학(영, 러, 일) |
| ○ 차량정비 | ○ 메이크업, 헤어 | ○ 세무, 회계 | ○ 컴퓨터 디자인 |
| ○ 마사지 | ○ 크레인운전 | ○ 제단사 | ○ 경영일반 |
| ○ 요리 | ○ 건축 | ○ 제과, 제빵 | ○ 보석가공 |

☐ 주요 면담내용

① 모노센터 교육 수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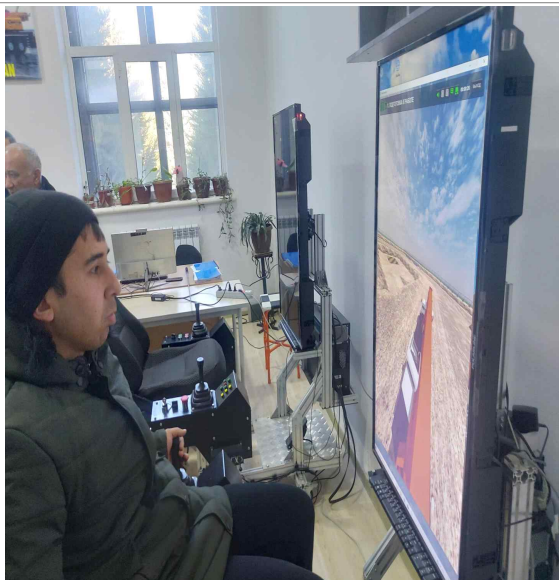
⇒ 각 지역 사회적 제단에 교육 신청을 먼저 하고 모노센터에 연계가 됨.

구직희망자가 모노센터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받은 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교육 과정을 선택 가능

②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지?

⇒ 보통 직업이 없는 수강생은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3개월 동안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들으면서 수료 과정을 진행 후 수료증을 발급함.

< 직업훈련센터, 모노센터 >



< 직업훈련센터, 모노센터 >



□ 한국어 시험 제도 개선 필요

- 현 문제은행 방식의 한국어 시험은 학원가의 기출문제 분석으로 스킬식 한국어 시험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 스킬식 문제풀이 방식으로 합격을 어렵게 하거나, 읽기가 아닌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험방식을 모색할 필요

□ 귀국근로자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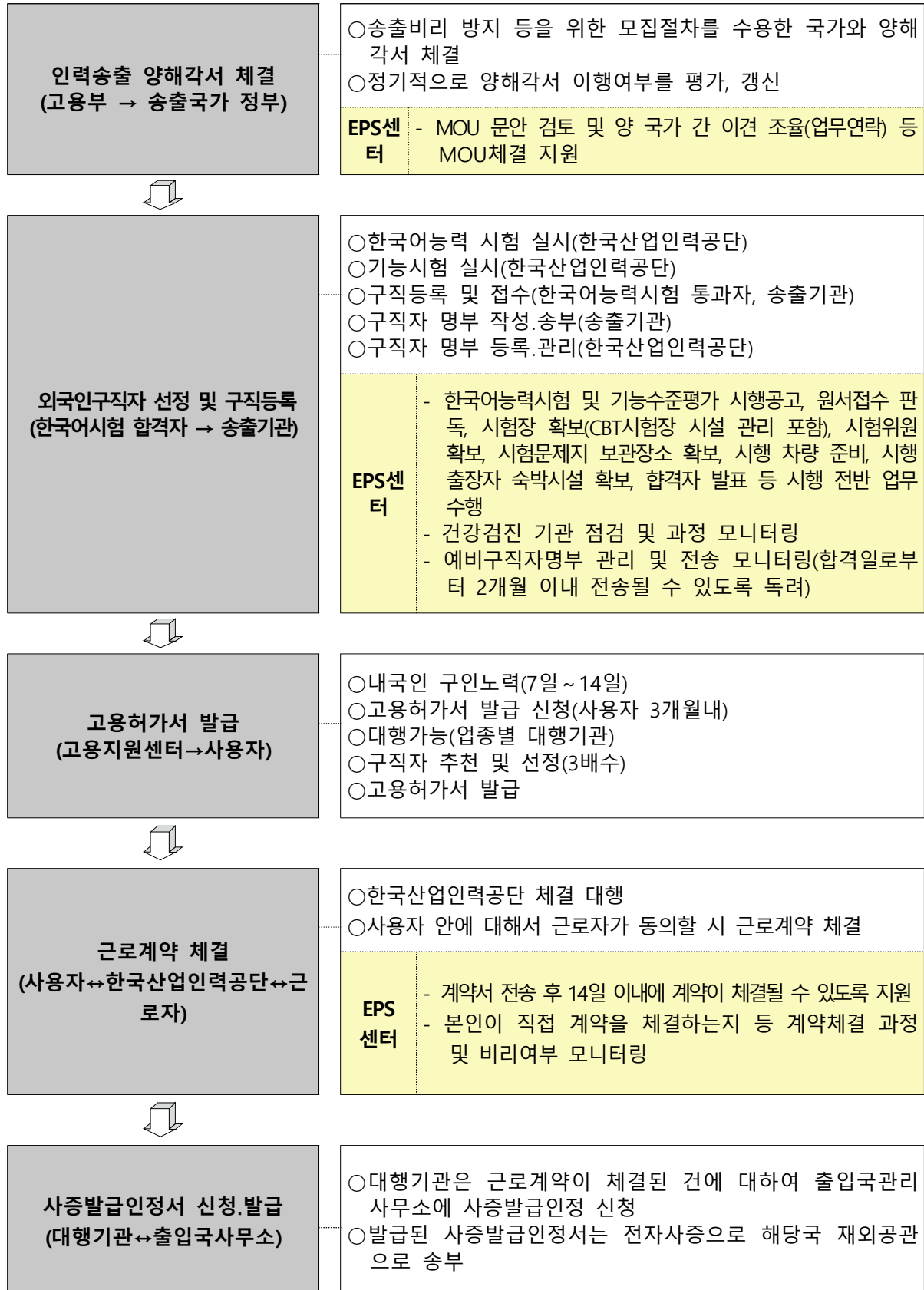
- 한국에서 만기근무 후 성공적으로 귀국한 근로자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EPS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국에서 재취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필요
 - 또한, 한국에서 본국으로 성공적으로 귀국한 근로자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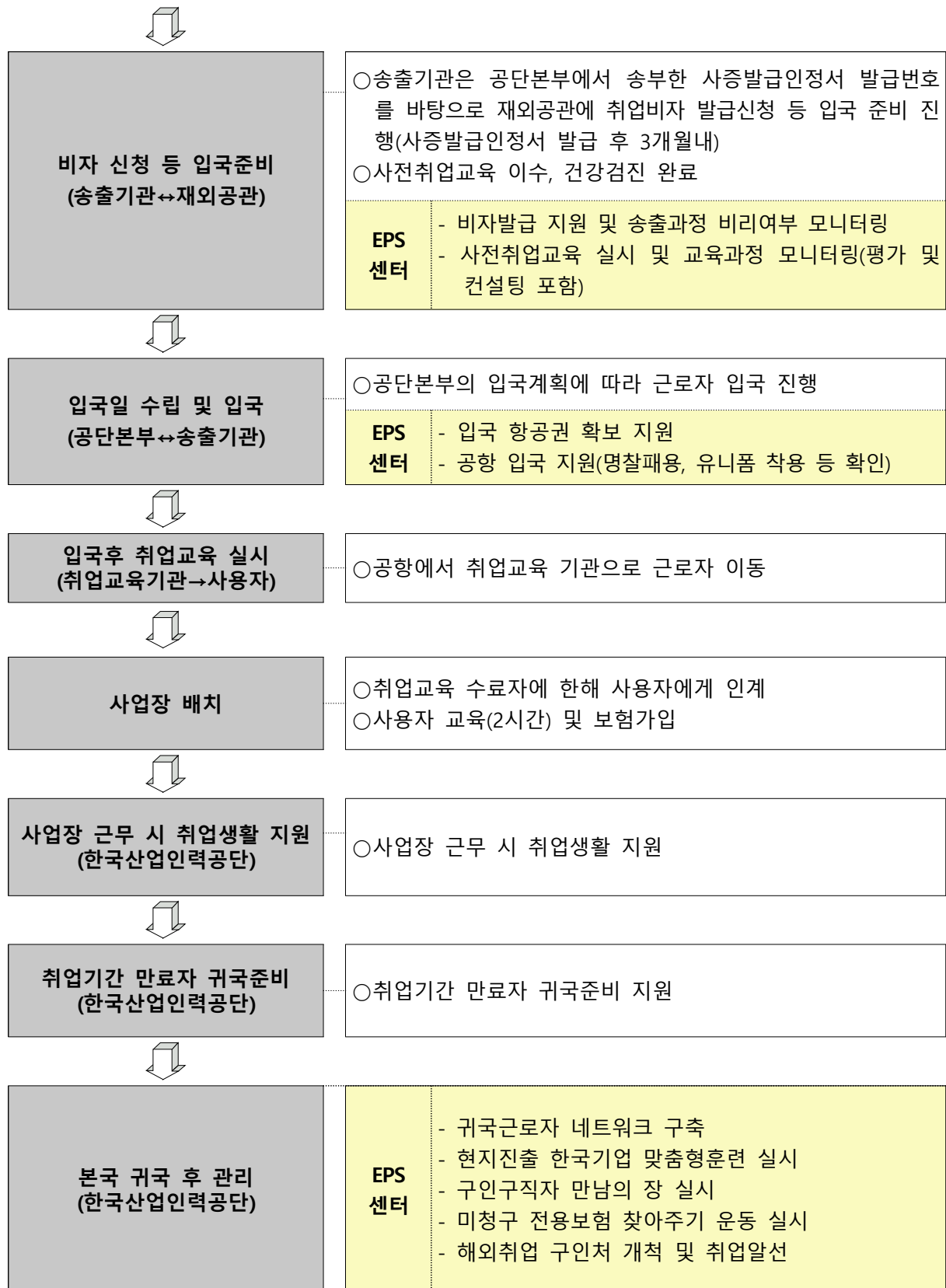
□ 현지 교육훈련시설 활용 방안 모색

- 해외 송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직업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
 - 따라서, 단순히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시험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이들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가점을 주는 등 현지에 있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숙련된 후 입국토록 유도하면 국내에 숙련된 인력이 들어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1

고용허가제 업무절차별 EPS센터 역할





※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국가 내 각종 동향 및 송출국가 정부, 송출기관과의 업무협력 활동 수시보고